

바레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

2015. 7.

I. 일반개황	1
II. 경제동향	2
III. 정치·사회동향	5
IV. 국제신인도	8
V. 종합의견	11

I. 일반개황

면적	760 km ²	G D P	339억 달러 (2014년)
인구	1.20백만 명 (2014년)	1 인 당 GDP	28,272 달러 (2014년)
정치체제	입헌군주제	통화단위	Bahraini Dinar(BD)
대외정책	친서방	환율(달러당)	0.376 (달러 페그제)

- 인구 132만 명, 우리나라 강화도 크기에 해당하는 국토면적을 보유한 바레인은 걸프만에 위치하고 있는 소규모 도서국으로 바레인 섬 등 3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음.
- 법률상으로는 입헌군주국이나, 왕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음. 수니파인 al-Khalifa 가문이 200년 이상 통치해 오고 있으며, 아버지 Isa bin Salman 국왕의 뒤를 이어 1999년 왕위에 오른 Hamad 국왕이 현재 통치하고 있음.
- 바레인 왕실은 수니파이나, 전 인구의 약 60%를 시아파가 차지하고 있어 정정 불안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. 2011년 2월 중순에 시작된 반정부 시위가 3월 중순부터 정부의 강경진압으로 격화되자 위 진압을 원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, UAE 군대가 파병되었고,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으며, 현재까지 정치·사회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.
- 석유자원은 다른 GCC 회원국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, 주로 원유를 수입 후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생산, 수출하고 있음. 또한 일찍부터 비석유 부문에 대한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, 금융산업과 알루미늄 제조업이 핵심산업임.

II. 경제동향

1. 국내경제

□ 저유가 지속으로 낮은 경제성장률 유지

- 바레인 경제는 2000~08년 유가상승과 금융산업 성장에 힘입어 연평균 6%의 고성장을 시현하였으나, 2009년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성장률이 3.1%로 급락하였으며 2011~12년에는 반정부 시위의 여파로 2.1% 성장에 그쳤음.
- 2014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제품 수출액 감소와 사회불안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전년(5.3%) 대비 하락한 4.8%의 경제성장률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며, 2015년에는 성장이 2.7%로 더욱 둔화될 전망이다.

□ 원유수출 수입(收入) 감소로 재정수지 적자 지속 전망

- 석유가스 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% 수준으로 GCC 회원국들 중 최저이나, 석유 판매수입이 정부의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% 이상임.
- 2014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세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전년 (-3.3%) 대비 상승한 -4.5%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며, 동 비율은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이 예상되는 2015년에는 -10.3%까지 상승할 것으로 우려됨.
- 정부는 2011년 “아랍의 봄”을 계기로 발생한 사회적 불안정을 진정 시키고자 각종 보조금을 늘린 결과 재정수지가 적자를 지속하고 있으며,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.

□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%대를 유지할 전망

- 2014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식료품을 비롯한 주요 수입품 국제가격의 하락 추세에 힘입어 전년(3.3%) 대비 다소 하락한 2.5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- 2015년에는 식료품 국제가격 하락세 지속, 사회 혼란에 따른 내수소비 증가세 둔화, 바레인디나르화가 페그(peg)된 미 달러의 강세 전망 등으로 수입물가가 하락하면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.1%를 기록할 전망이다.

< 표 1 >

주요 국내경제 지표

(단위: %)

구 분	2011	2012	2013	2014 ^e	2015 ^f
경제성장률	2.1	3.4	5.3	4.8	2.7
재정수지 / GDP	-0.3	-2.0	-3.3	-4.5	-10.3
소비자물가상승률	-0.4	2.8	3.3	2.5	2.1

자료: EIU.

2. 경제 구조 및 정책

가. 구조적 취약성

□ 강화도의 약 2배 크기인 걸프 지역의 소국(小國)

- 바레인은 한반도 면적의 0.3%에 불과한 760km²의 영토(강화도의 약 2배)를 지닌 걸프 지역의 소국으로, 2013년 확인매장량 기준 1억 배럴의 원유와 0.2조 m³의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음.

나. 성장 잠재력

□ 에너지자원이 빈약하여 비석유 부문 육성

- GCC 회원국들 중 최소국(最小國)이자 석유, 천연가스 매장량이 가장 빈약한 수준임. 이에 따라 정부는 비석유 부문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걸프 지역의 금융, 통신, 교통 등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.
- 이 같은 노력의 결과, 석유, 천연가스 부문이 바레인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GCC 국가들 중 가장 낮은 21%로 추정됨.
- 그러나 원유매장량이 빈약하여 주변국에서 원유를 수입 후 정제하여 수출하는 구조이며, 주변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금융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변동하는 등 주변국의 원유생산량과 경기변동에 국가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함.

다. 정책성과

□ Bahrain Economic Vision 2030의 추진

- 바레인의 경제개발계획, 투자유치 전략 수립 등을 담당하는 바레인 경제개발위원회(EDB)는 2008년 10월 지속가능, 공정, 경쟁의 3대 원칙에 초점을 맞춘 경제개발계획인 Bahrain Economic Vision 2030을 발표하였음.
- 동 비전의 주요 내용은 직업훈련 등을 통한 고용시장 개선, 교육 및 보건환경 개선, 각종 인프라 확충, 첨단기술 및 R&D 산업 육성, 각종 국제회의 개최 등 비즈니스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 등임.
-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, 여전히 높은 실업률, 주택난 등 시아파가 다수인 국민들의 수니파 왕정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.

3. 대외거래

< 표 3 > 주요 대외거래 지표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구분	2011	2012	2013	2014 ^e	2015 ^f
경 상 수 지	158,545	164,764	132,640	95,491	17,871
경 상 수 지 / G D P	23.7	22.5	17.7	15.1	2.5
상 품 수 지	244,774	246,571	222,714	184,072	109,750
수 출	364,735	388,370	375,961	346,820	280,798
수 입	119,961	141,799	153,247	162,748	171,048
외 환 보 유 액	525,521	640,975	710,485	741,991	718,077
총 외 채 잔 액	97,563	91,539	86,775	91,056	108,612
총 외 채 잔 액 / G D P	14.6	12.5	11.6	12.1	16.7
D S R	4.2	3.9	4.0	4.0	4.0

자료: IMF, EIU.

□ 국제유가 하락세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 축소 전망

- 2014년 하반기부터 가속화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제품 수출가격도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, 여타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2014년의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전년과 동일한 5.3%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.

- 바레인은 여타 GCC 국가들과 달리 원유를 수입 후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생산, 수출하고 있으며, 알루미늄 제품과 화학제품도 주요 수출 품목임.
-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석유제품 가격의 추가 하락과, 세계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알루미늄 제품 등의 수출도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, 2015년 경상수지는 GDP 대비 -2.1%의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.

□ FDI 유입 증가로 외환보유액은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

- 외국인직접투자(FDI) 유입의 꾸준한 증가가 경상수지 적자 전환을 보완하여, 외환보유액은 50억 달러 안팎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.
-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14에 따르면, 바레인의 FDI 유입액은 2011년 7.8억 달러, 2012년 8.9억 달러, 2013년 9.9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.

Ⅲ. 정치 · 사회동향

1. 정치안정

□ 입헌군주국임에도 왕실의 권력 독점체제 유지

- 바레인은 법률상으로는 입헌군주국이나, 여타 GCC 회원국들처럼 왕실 가족들이 총리는 물론 내무장관, 국방장관, 외무장관 등의 요직을 독점하고 있음.
- 입법부는 상원에 해당하는 국가자문회의(Shura Council, 40석)와 하원에 해당하는 국민의회(Chamber of Deputies, 40석)의 2개로 구성되어 있으나, 국왕이 국가자문회의 의원을 임명하여 일반적 개념의 의회와는 거리가 있음.

□ 왕실은 수니파, 국민의 다수는 시아파로 정정불안

- 바레인은 GCC 회원국들 중 2011년 1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중동 민주화 혁명 '아랍의 봄'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나라로, 반정부 시위가 빈발하고 있음.

- 바레인 왕실은 수니파이나, 전 인구의 약 60%를 시아파가 차지하고 있음. 수니파 왕실이 국가권력을 독점한 상태에서 실업률과 주택난 등 민생 문제가 불거지자 시아파 국민들의 불만이 쌓여 정정불안으로 이어졌음.
- 2011년 2월 '아랍의 봄'의 영향으로 최대 규모의 시아파 야권단체인 al-Wefaq의 주도하에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하자, 바레인 정부는 동년 3월 GCC 방위군의 파견을 요청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하였음.
 - GCC 방위군의 지원 아래 반정부 시위가 진압되자, 바레인 정부는 2011년 7월 범국민대화(national dialogue)를 개시하였으나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.

□ 2014년 12월의 총선은 야권의 보이콧으로 인하여 '반쪽 총선'으로 전락

- 2014년 11월의 국민의회 총선은 2011년 '아랍의 봄' 이후 첫 선거였으나, al-Wefaq 등 4개 시아파 야권단체는 총선이 왕정의 강화를 위해 불공정 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불참하여 사실상 '반쪽 총선'으로 전락하였음.
 - 바레인 야권은 총선 전부터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국가자문 회의의 해체를 계속 요구해 왔음.
- 한편, al-Wefaq는 총회 의사결정의 불법성을 이유로 2014년 10월 법원에 의해 정치활동이 3개월간 금지되었음. 따라서 총선 후보의 대부분은 친정부 수니파였으며, 개표 결과 총 40석 중 수니파가 27석, 시아파 무소속이 13석을 차지하였음.
 - 바레인 정부는 2014년 12월 28일 al-Wefaq의 사무총장 Sheikh Ali Salman을 정부 전복 기도 등의 혐의로 체포, 구금하여 미국, 이란 등의 비판에 직면하였음.

□ 정부 및 야권의 강경파 대립

- 제1부총리인 Salman bin Hamad 왕태자는 범국민대화를 통한 정부-국민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갈등 해소를 추진하고 있으나, 왕실과 정부 내의 강경파와 야권 내 강경파 모두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음.

- 왕실과 정부 내의 강경파는 1970년 1월부터 현재까지 45년 동안 총리로 재직 중인 Khalifa bin Salman 왕자(현 국왕의 숙부)가 주도하고 있음.
- 한편, 야권에서는 평화적 시위를 촉구하는 al-Wefaq에 반발하는 '2월 14일 청년연합' 등의 조직이 강경 노선을 내세우고 있음.

2. 사회안정 및 소요/사태

□ 수니파 왕실에 대한 시아파 국민들의 불만 고조

- 수니파 왕실과 정부가 시아파 주도세력인 미-Wefaq를 탄압하는 데 따른 시아파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그에 따른 사회 혼란 가중의 위험이 상존함. 특히 20%에 육박하는 실업률은 국민들의 불만을 더욱 자극하고 있음.

□ 집회 및 시위의 자유 제한, 언론탄압 등 긴장 고조

- 바레인 정부는 반정부 시위를 차단하기 위해, 언론 및 국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신보안법(New Security Laws)을 도입하는 등 집회,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을 탄압하여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음.
- 총선 후인 2014년 12월 수도 마나마 남서부의 시아파 주민 거주지역에서 2차례의 폭탄 테러가 일어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.
- 바레인 내무부는 2015년 1월 이슬람 원리주의 성직자를 포함한 72명의 바레인 시민권자들(반정부 인사, 테러활동 후원자 등)의 국적을 박탈하였음. 이들은 주로 국외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짐.

3. 국제관계

□ GCC 회원국들과의 협력관계는 대외정책의 근간

- GCC 회원국들과의 협력관계는 바레인 대외정책의 근간으로, 바레인은 정치, 외교의 주요 사안에서 GCC 회원국들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음.

- 특히 걸프 지역의 맹주를 자처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무슬림형제단을 지원하는 카타르에 대한 외교적 제재조치(자국 대사 소환)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음.
- 2011년 반정부 시위 이후 경제회복과 사회안전을 돕기 위해 GCC 외교 장관들이 GCC 개발기금을 창설, 바레인과 오만에 향후 10년간 각각 총 100억 달러를 무상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.
- 동 지원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대규모 주택과 복지시설 건설, 인프라 확충 등의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있음.

□ 미국 등 서방과도 긴밀한 동맹관계 유지

- 바레인은 여타 GCC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국가들과 긴밀한 전략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, 따라서 미국의 외교정책 동향은 바레인의 외교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.
- 바레인은 2004년 7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(FTA)을 체결하였으며, 미국은 현재 바레인에 5개의 해군기지를 두고 있음. 한편, 영국도 걸프 지역의 안보 강화를 위해 바레인에 해군기지를 신설할 예정임.
- 그러나 2014년 7월에는 자국을 방문하여 최대 야권단체인 al-Wefaq 관계자들과 면담한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내정간섭을 이유로 추방명령을 내리는 등 정치적 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갈등 요소도 존재함.

IV. 국제신인도

1. 외채상환태도

□ 외채상환태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

-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차입으로 외채가 증가하고 있으나, 단기외채가 대외지급준비자산보다 적고, 위기발생시 GCC 국가들의 지원이 예상되어 채무상환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.

□ 2014년 대 바레인 교역규모는 8.9억 달러 기록

- 2014년 대 바레인 교역규모는 8.9억 달러로, 수출은 자동차, 전기기기, 기계류를 중심으로 2.7억 달러(전년대비 17.6% 증가), 수입은 석유제품, 알루미늄, 철강을 중심으로 6.2억 달러(전년대비 2.8% 증가)를 기록하였음.

< 표 5 >

한·바레인 교역 규모

(단위: 천 달러)

	2012	2013	2014	주요 품목
수 출	233,977	275,226	79635	자동차, 전선
수 입	598,647	615,508	230,501	석유제품, 알루미늄

자료: 한국무역협회.

□ 해외직접투자(2014년 말 누계, 총투자기준) : 13건, 1억 3,721만 달러

- 우리나라의 대 바레인 투자는 2010년에 6,108만 달러로 집계 이래 연간 최고치를 기록한 외에는 특별한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. 주요 투자업종은 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(투자누계액의 66.1%), 금융, 보험업 등임.

V. 종합의견

- 바레인은 석유가스 부문이 GDPdptj 차지하는 비중은 GCC 회원국들 중 최저이나, 석유 판매수입이 정부의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%이상으로, 최근 국제 유가하락으로 인해 재정수지가 적자를 지속할 전망이다.
-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석유제품 수출 가격 하락,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알루미늄 제품 등의 수출 감소에 따라, 경상수지도 적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며, 경제성장률도 하락할 전망이다.
- 한편, 범국민대화를 통한 정부와 야권의 갈등 해소 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, 야권 단체인 al-Wefaq의 사무총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등 정정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, 정부 및 야권 모두가 강경파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임. 또한 시아파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2014년 12월 2차례의 폭탄 테러가 발생하는 등 사회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.

책임조사역 고영애 (☎02-3779-5720)
E-mail: kya321@koreaexim.go.kr